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공장으로 돌아갈 것”

지엠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 ... “업체 바뀌어도 이윤은 한국GM으로”

금속노조는 한국GM에 GM세종부품물류 하청 노동자들 120명의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세종 연기면 한국지엠 세종중앙물류센터 앞에서 ‘노조법 개정 무력화 저지! 원청교섭 쟁취!’ 지엠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 세종 부품물류센터 해고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농성 투쟁하고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책임지고 교섭하라는 것이 노조법 개정 취지”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법 2·3조까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한국GM이 자본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묵하고 있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행령에 온갖 단서를 붙일수록 자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투쟁이 2026년 금속노조의 첫 투쟁인 만큼 반드시 승리해서 한국GM의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김용태 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장은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

로 노조를 만들었던 것인데, 노조가 만들어질 때부터 정수유통과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이라며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다.



김용태 지회장은 “사측에서는 교섭 안전마다 GM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 원청에서 찾아와 발탁 채용을 제안하며 파업 종료를 종용했다”며, 원청의 영향력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짚었다. 노조를 없애기 위한 GM 자본의 기획을 옆에서 보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노동부도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현장의 말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와주었다며,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연대의 마음을 받아 끝까지 힘차게 싸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이 투쟁에 연대하는 모든 사람이 해고자 동지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도 현장을 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한국지엠이라며, 고용에 대한 책임도 한국지엠이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규백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원청노조로써 좀 더 단호하고 강고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대전충북지부의 승리가 한국지엠지부의 승리여야 하고, 그것이 곧 금속노조의 승리일 것”이라며,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닌 비를 함께 맞는 투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광수 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같은 처지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현실은 노동착취의 민낯”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럼에도 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휴탕물 속에서 더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누구보다 질기게 투쟁해야 한다며 “언젠가 맑은 물에서 노동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GM이 새로 물량 생산을 위탁하려 하고 있는 업체까지 행진하고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물량 반출은 불법”이라며 원청 한국GM이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집회를 마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지엠은 집단해고 철회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원청과 정부에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일 오후 한국지엠세종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120명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라며 “정부는 한국지엠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지엠을 비롯 해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 현실과 이를 방지해 온 제도 한계를 지적했다. 이인배 노조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장은 “새

해 첫날 한국지엠은 하청 노동자 120명을 길거리로 내팽개쳤다”라며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이자 인권 유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인배 지회장은 “120명 동지가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비정규직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날까지, 탐욕스러운 자본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